

# 장애인과 축구하며 '나눔결사' 실천

### 총무원장 자승스님 체육용품 지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총무기관 총무원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 3차 정진 회향을 앞두고 장애인들과 축구를 하며 나눔결사를 실천에 옮겼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총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스님과 재가 총무원, 불교계 종사자 축구모임인 FC 붓다 선수단 등 불자 80여 명은 뇌성마비 장애인들로 구성된 고풍리축구단과 지난 15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벌였다.

고풍리축구단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대표팀으로 참가했던 선수들이 창립한 단체다. 지난 5월 미국 하버드대 축구단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불자와 장애인들의 친선경기는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된 팀, 고풍리축구단 선수들과 임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 조계종 재가불자팀 등 3개 팀으로 꾸려 각 20분씩 경기를 진행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전체 구성원들을 섞은 혼합팀이 승부를 펼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직접 출전해 장애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

수로 나선 총무원장 스님은, 상당히 날렵한 몸놀림으로 몇 차례 결정적인 슈트를 날렸으나 아쉽게도 득점은 못했다.

경기 시작 전 총무원장 스님은 고풍리축구단에 격려금과 종단이 판매하는 생수 '감로수', 축구용품을 선물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두 번째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와 자신을 밀착 마크한 선수에게 순금 열쇠고리를 축사에서 선물하며 격려했다. 인근의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정수스님)와 불교계 장기나눔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도 격려금을 전했다.

경기를 주최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는 "친선 경기를 계기로 '장애인 템플스테이', '장애인 전법단 구성' 등 통해 불교계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중앙총무기관 총무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 3차 100일 정진을 회향했다. 4차 정진은 10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남양주=장영섭 기자



지난 15일 남양주 광동고에서 열린 장애인들과의 축구경기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상대팀 선수와 볼을 다루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ibulgyo.com

#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최선"

### 인터뷰 / 美동부 해외특별교구장 석원스님



"중단유학승 숙식지원 교포 자녀 대상 불교문화체험 활성화"

"조계종에서 첫 번째 설립한 해외 특별교구의 교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설립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초대 교구장 석원스님(사진)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석원스님은 해외특별교구가 종단과 해외의 한국사찰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해외특별교구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행사비 지원, 해외특별교구 중무늬 급여 지원, 현지인 포교 가능한 법사 파견 등을 약속했다. 교구장 석원스님은 종단 스님의 해외 유학식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의 한국사찰 대부분이 종단의 지원이 아닌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창건해 운영하고 있다 보니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단과 해외사찰이 서로 협력할

부분을 적극 협력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외특별교구가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석원스님은 미국 유학 스님에 대한 숙식제공과 장학금 지원, 부처님오신날 체험행렬 실시,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불교문화체험단의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 평가될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저희 해외특별교구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단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금씩 분담금을 내 여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 등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으며 현재 28개 한국사찰을 소속 사찰로 두고 있다.

석원스님은 특별교구 내 사찰간의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와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자주 연락하며 화합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사찰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동안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구가 처음으로 출범한 만큼 조만간에 공양을 함께 하면서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교구 발전과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말소된 승적 회복 방안 승려법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분신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 말소자의 승적 회복 방안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승려법 개정안은 분신신고 미필자가 승적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신 신고를 한 경우 승적말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승적말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스님에 대해 분신신고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직권 제적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복적 심사를 통해 복적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계를 강등하고, 복적 신청도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 지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과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인택 기자

# "불교, 순 한글 국가도메인 사업성 적극 검토해 달라"

###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책특보단에 주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총무원장 종책특보단 정례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종책특보단장 정범스님, 전산정보특보 정범스님, 해외특별교구특보 종민스님, 신도시특보 허운스님 등이 참석해 종책특보들이 각자 맡은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며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산정보특보 정범스님은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종단 전산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만큼 내

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순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정한국)'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순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불교와의 연관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정범스님은 이에 "·절(점절)과 '사찰(점사찰)'도메인은 일반 검색창 검색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한국(정한국)'도메인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종단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해외특별교구특보 종민스님은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출범에 대해 보고한 뒤 향후 다른 지역의 해외특별교구 설립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에 "앞으로 2, 3년간은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 다음에 미국 서부와 중부, 유럽 등지에 추가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프랑스 파리 등 한국 사찰이 1, 2곳 밖에 없는 지역에는 대표부를 설치해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해외특별교구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특보 허운스님은 위례신도시의 종교부지 활용 방안을, 박기린 불자네트워크특보는 불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모임 결성과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각각 보고해 사업을 점검했다.

### '전통불교문화원' (1면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지난 주말에 함께 축구했던 고풍리장애인축구단을 내내 한 번 초청해 2박3일간 템플스테이를 하며 지역 스님들과 축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안스님은 "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맡은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광전스님

신임 본부장 정안스님은 현 문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지난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사무처장과 대운안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승가학원(중앙승가대) 이사과 가평 아가타보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무국장 광전스님은 정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용궁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센터 국제국장 소임을 맡아왔다.

본·말사 주지인사			10월12일 총무회의 결과		
도계스님 광주 길상사	장석스님 서울 원통사	덕주스님 청주 보문정사	상민스님 하동 용연사	정오스님 김해 성덕암	영현스님 신청 대원사
택현스님 포항 자원사	주석스님 함양 대운사	우보스님 창녕 각료암	등운스님 안동 서악사	중결스님 군산 성불사	영현스님 신청 대원사

##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 환! 펼쳐라~

2011. 10. 28(금) ~ 10. 31(월)  
광주염주종합체육관

남도전통문화 · 명품 박람회 10.28~10.31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장터 10.28~10.31

유네스코 지정 평화예술단 공연 10.28~10.29

10월의 선물 '세대공감' 콘서트(무료) 10.30

침 · 땀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 초청 10.31

저절로생협 대표전화 : 1544-9955, 062-655-7577  
후원계좌 : 농협 302-0450-1729-61 저절로생협  
홈페이지 : www.ndfestival.co.kr

주최 |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 저절로생협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BC